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20년 3월 15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출 2:23-25

제목 : 꽃이 피는 신앙 · 부지런한 일꾼(7)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 :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 2:25)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전전주부터 전화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전화심방을 하는 데 권사님은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상태가 안 좋아 잔기침이 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코로나19에 대하여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계속 보니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안보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이즈음은 계속 스마트 폰에 문자 연락이 오는 소리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거의 대부분 확진 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확진 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가? 그런 생각에 열어봅니다. 참 코로나에 관한 뉴스를 너무 안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백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고통을 만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의 기록입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언제 어떻게 고통이 왔는가? 입니다. 세 가지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출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구절에서 <안다>는 원문의 단어는 <아다>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안다. 들음을 통해서 안다. 실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다. 그뿐만 아니라 <친분을 맺다.> <심지어 성관계를 갖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즉 체험적인 관계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전혀 친밀한 관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호의나 관심이 전혀 없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투드모스 1세입니다. (BC1539-1514) 이 자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짜낸 지혜는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노동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아주 심한 육체노동을 시켜서 부부관계도 못할 정도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계획이 허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더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왕은 더 악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고통을 유발시킨 두 번째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애굽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행7:23에 의하면 40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그 일로 인하여 분에 가득 찬 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은 투드모스 3세(1504-1488)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2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기록한 <여러 해 후에>란 직역하면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지내면서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40세에 도망을 갔고 출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80년의 이상의 고통의 긴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을 때에는 애굽의 좋은 땅에서 그나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부터는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부터는 이렇게 상황이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두 번의 왕이 바뀌면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더욱 미움을 당하고 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다보면 늘 형편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처럼 주변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고통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훗날에 이 고통이 지난 뒤에 "성오야 너는 어떻게 고통을 맞이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하나님 대처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처하는 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일하심을 알아야 잘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외부적인 일로 다 함께 모여서 주일 공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도 처음입니다.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주 수요일엔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약국에서 줄을 섰습니다. 제 바로 뒤엔 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생년 끝 자가 3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감을 두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대되는 형벌입니다. 사탄적인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

가 선악과를 따 먹게 만들고 서로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어울려서 친밀하게 살아가야 하는 데 데 그 것을 못하니 정말 고통입니다.

특히, 성도간의 교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 133편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교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1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만남과 식탁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한 장로님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데 일터에서 두 시간마다 열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평소시의 열 36.5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지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그래도 영상으로 설교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후 7시에 기도하는 시간도 감사입니다. 이 시간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상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면서 일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노동이 고된지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탄식>의 의미는 <신음하다>입니다. 표준 영어성경은 <groan>으로 번역했습니다. 큰 고통에서 나오는 깊고 긴 소리를 말합니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내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한계에 다 다르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는 <통곡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깊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삶에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는 시간은 특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코로나 19도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23절 후반부에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상달하다>의 히브리어는 <알라>입니다. 의미는 <올라가다>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10:4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로 기도하도록 만드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24-25입니다. "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먼저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경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밀한 것까지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주는 세밀한 아픔까지도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서 건져 내실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을 돌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취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만 바라볼찌라." 작은 신음 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살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다>의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32:10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19로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압탈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안에 다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였더라>는 단어가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도 두 번 나옵니다. 강조의 의미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한 지도자로 부르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을 만들어 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꿈이나 환상 또는 직감을 통해서 이 코로나 19에서 빠져 나

올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인류 최초로 전신 부호를 만든 자가 새뮤얼 핀리 브리즈 모스(Samuel Finley Breese Morse, 1791년~1872년)입니다. 예일대학에서 공부했고, 뉴욕대학의 미술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가로서도 유명했습니다. 전신부호를 연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빛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노력 끝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신 부호를 완성한 후 모스는 인류 최초의 전신을 보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잠3:5-6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코로나 19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힘든 고통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특히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를 택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더욱 간절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사람을 통해 분명히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누구 인지는 모르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성도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